



오빠두엑셀 기초강좌 E-BOOK

1

Free Tutorial

2

Business Excel

3

Basic to Expert

한국어

#엑셀첫걸음 1-1

엑셀의

화면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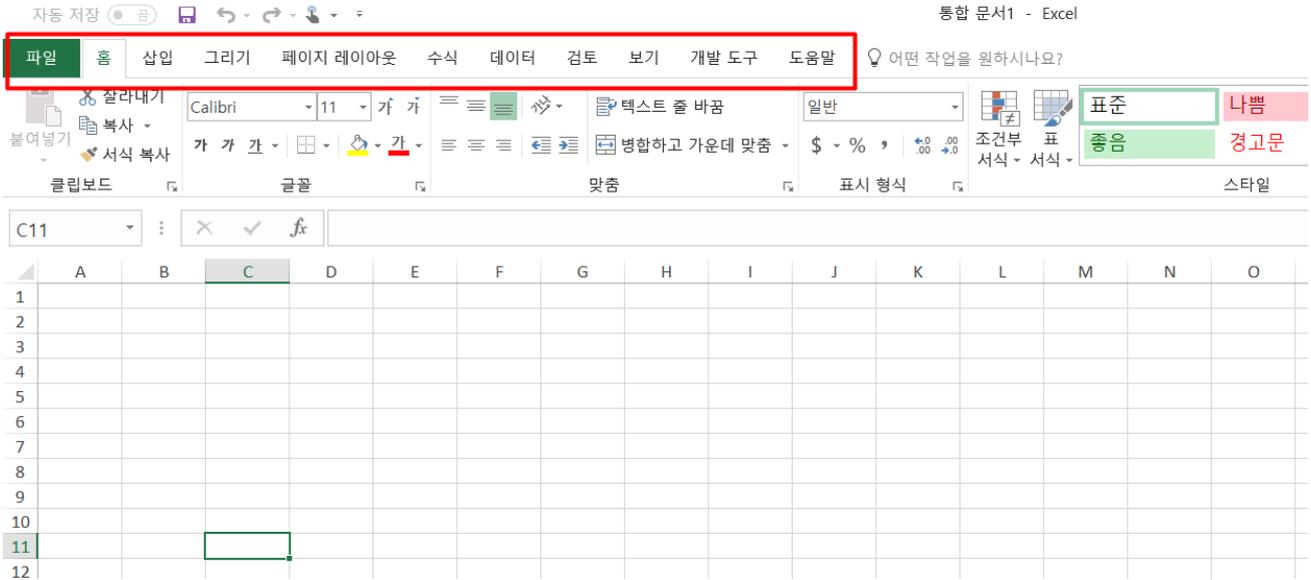
이해하기



1. 엑셀의 화면 이해하기 [메뉴부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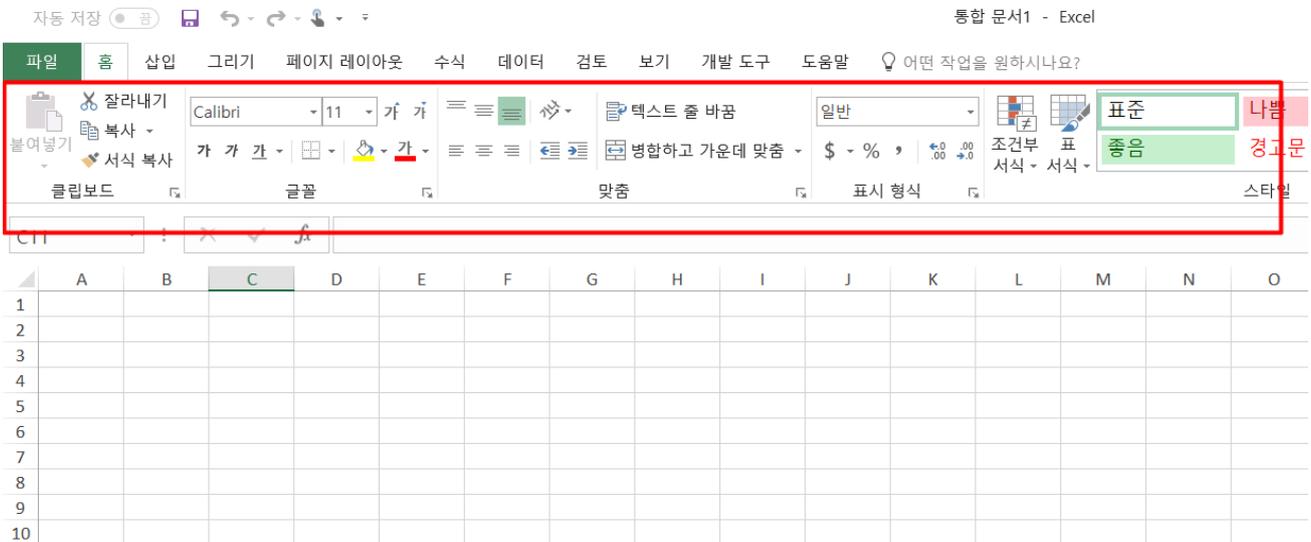
[탭(Tab) 버튼]

엑셀을 실행하시면 가장 맨 윗부분에 [파일/홈/삽입/그리기]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. 이것을 Tab 버튼이라고 부르는데요. Tab 버튼은 엑셀 화면에서 **최상위의 기능들**을 목록별로 나누어 놓은 버튼입니다.



[리본(Ribbon) 버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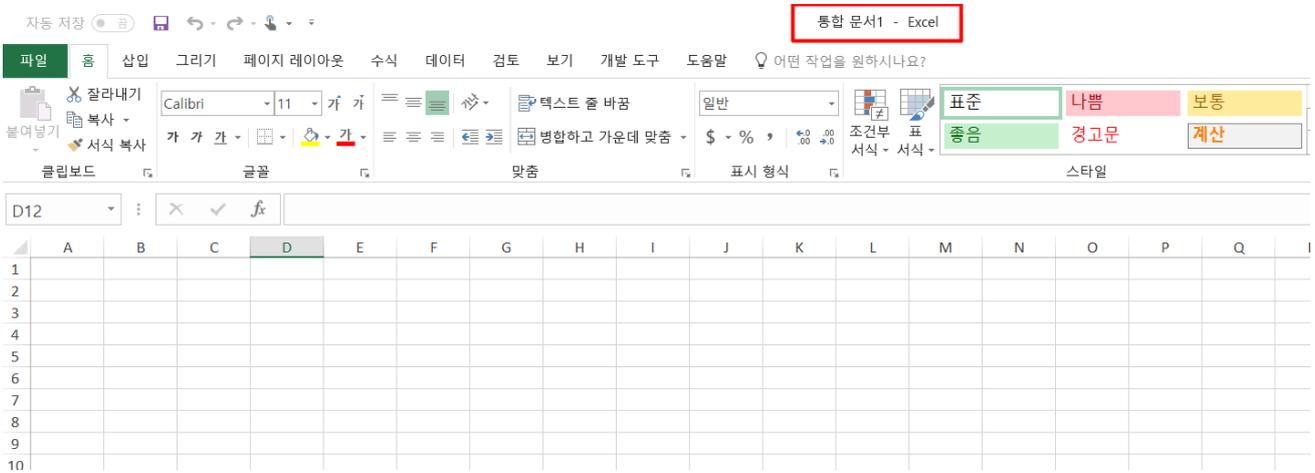
리본 버튼은 각 탭(Tab)버튼 아래에 위치한 실제 **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그룹별로 나눈 부분**입니다. 예를 들어, [홈]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, 그 아래에 [클립보드], [글꼴], [맞춤] 등 각 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글꼴과 셀의 형태를 변경하는 기능들을 각 그룹별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기능들은 처음부터 숙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다만 각 리본별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신다면, 이후에 엑셀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

2. 엑셀의 화면 이해하기 [스프레드시트 부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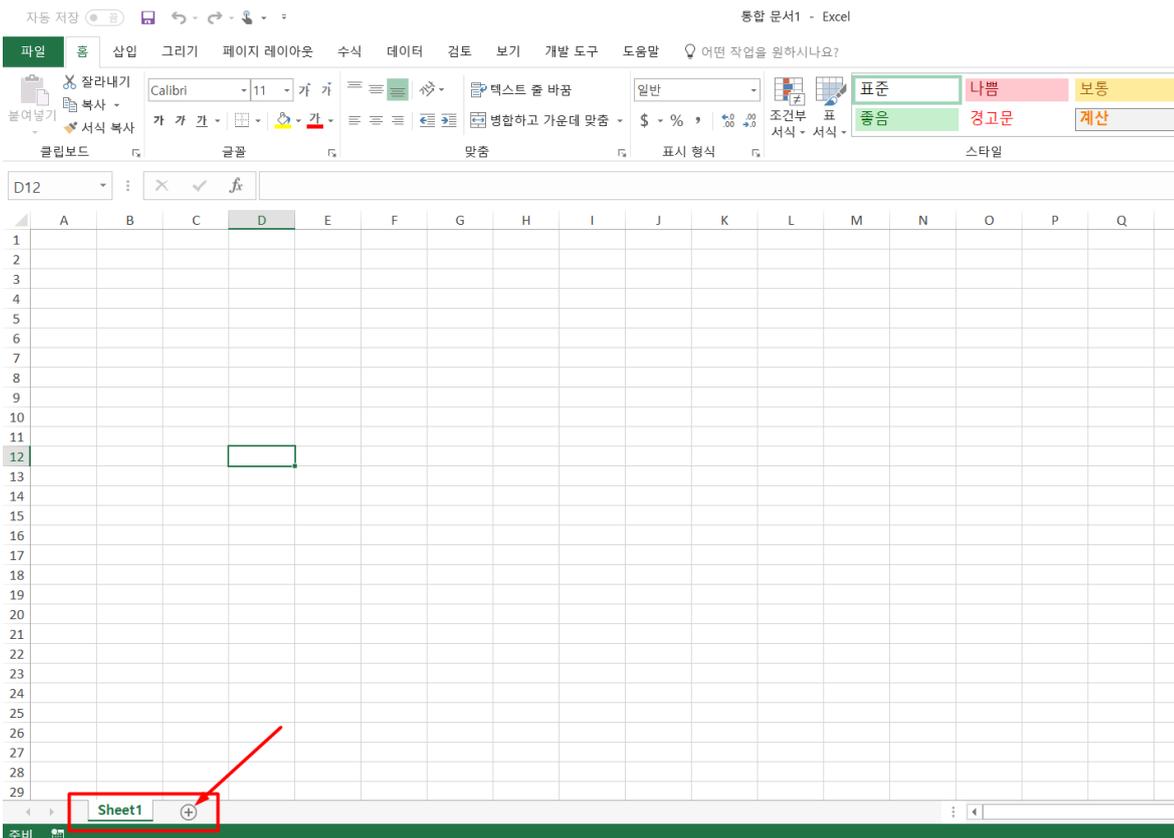
[워크북(Workbook)]

엑셀은 생성된 각각의 파일을 '워크북(Workbook)'이라고 명칭합니다. 각 워크북의 이름은 엑셀의 맨 윗부분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[워크시트(Worksheet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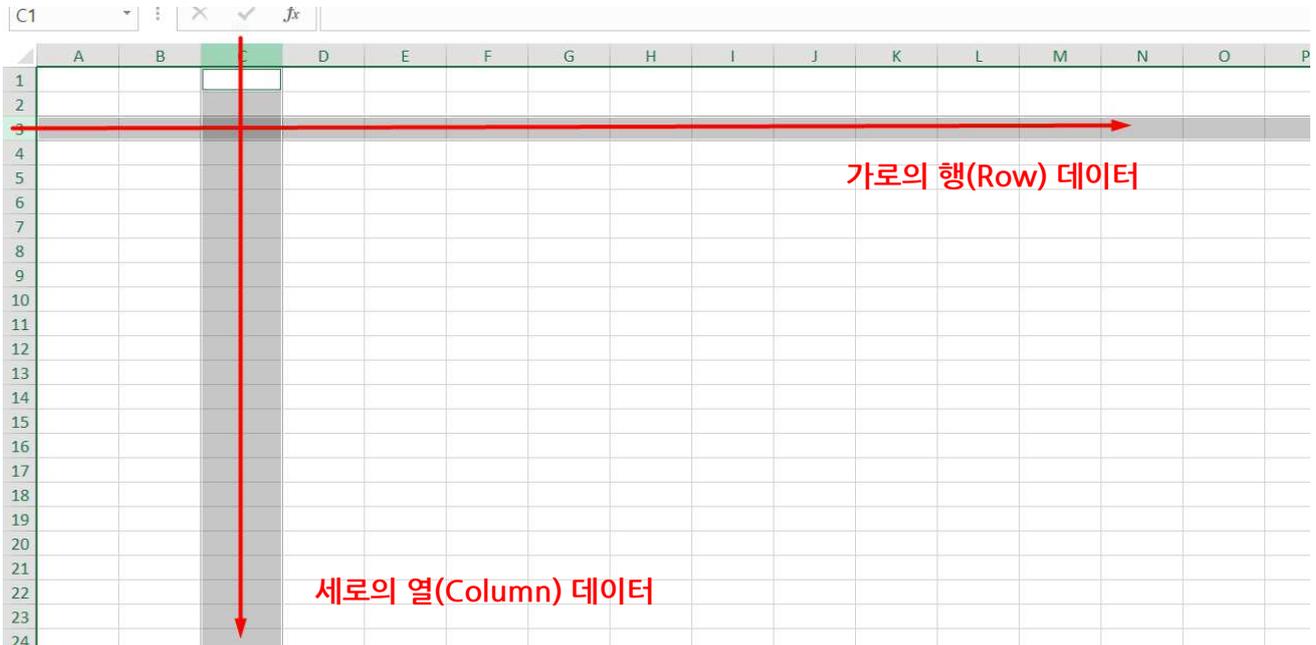
각 워크북 안에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가 들어갑니다. 워크시트의 개수는 사용자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무제한으로 생성 가능합니다. 워크시트는 엑셀화면 좌측하단에 나와있으며, 워크북과 같이 워크시트도 각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워크시트를 더블클릭하시면, 시트 이름을 손쉽게 변경 가능합니다. 만약 시트를 추가하고 싶을 경우, 시트 우측에 위치한 (+)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시트가 추가됩니다.



[행(Row)과 열(Column)]

각 시트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가로의 데이터를 ‘행’ 이라고 부르며, 세로의 데이터를 ‘열’이라고 부릅니다. 각각의 행은 1,2,3 과 같이 숫자로 매김되어 있고, 열은 A,B,C 와 같이 알파벳으로 매김되어 있습니다. 행은 최대 1,048,576 개 (약 100 만개) 까지 입력가능하며, 열은 최대 XFD 열 까지 총 16,348 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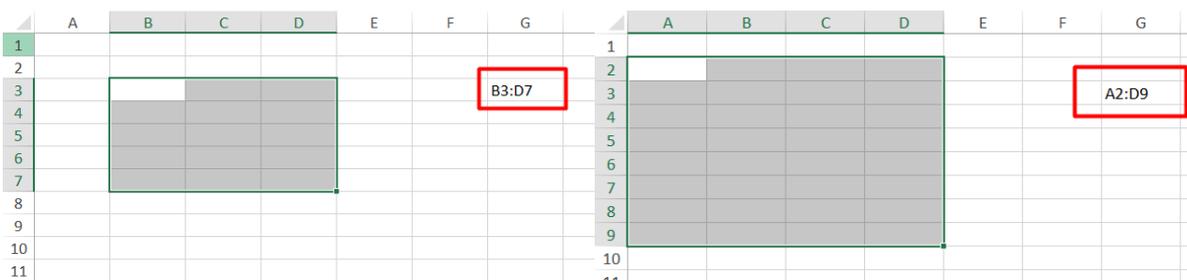
이러한 행과 열의 매김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비롯되었는데요, 내용이 궁금하시다면, 오빠두채널에서 **‘엑셀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’ 강의를 참조**해주시기 바랍니다. ([강의 바로가기 클릭](#))



[셀(Cell)과 범위(Range)]

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에는 셀(cell)이 생성되고, 이 각각의 셀에는 데이터가 입력됩니다. 행과 열이 숫자와 알파벳으로 매김되듯이, 각각의 셀도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. 각각의 셀은 A1, B2, C2, 와 같이 행과 열로부터 이름이 정해집니다.

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시면 ‘범위(Range)’가 되고 범위 또한 셀처럼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. 범위의 이름은 좌측상단의 시작하는 셀과 우측하단의 끝나는 셀을 콜론(:)으로 나눠서 입력합니다.



더 자세한 내용은 오빠두 홈페이지에서 영상 강의를 참조해주세요 ! =)